

첨단산업·농생명 함께 성장...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조성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역균형 광역정책 '6대 호남공약' 발표
글로벌 문화관광·K-푸드 성장 등 고부가가치 산업전환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조성을 골자로 한 '6대 호남공약'을 구체화했다.

첨단 미래 산업·에너지 산업 등을 토대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호남권의 경제 부흥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28일 '이재명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호남을 비롯해 전국을 서울·경기·인천, 강원특별자치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충청, 전경지 등 8개 광역으로 나누고 광역별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과 과정 속에서 소외돼 온 만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 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비전을 호남 6대 공약에 담았다. 이는 광주, 전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와 맥을 같이해 공약 실현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이 후보는 호남에 고부가가치 산업전환을 약속했다.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AI 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주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여수의 주력 산업을 석유화학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광양 제철산업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목포는 해상풍력 및 전기선박 산업 중심지로 키우고, 군산은 조선소 재도약으로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서남해안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해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광주와 새만금 등 전남·북 일대에 'RE100'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 산업단지를 조성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해남에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나주의 한국전



광역별 공약
호남

- 1 AI·미래모빌리티·금융도시로 혁신
- 2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 에너지가 소득
- 3 농·축·수산의 미래, K-푸드 성장
- 4 전남·북의대 신설, 바이오 인재와 산업이 자라는 호남
- 5 전통과 콘텐츠가 만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 6 촘촘한 철도·고속도로 연결로 빠르고 강하게

력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한다.

또 새만금·부안·신안·고흥·여수 일대의 주민들과 함께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킨다. 태양과 바람이 만든 수익은 '햇빛, 바람 연금'이 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소득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이 후보는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화순 백신 특구는 백신, 항암, 면역 중심의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까지 잇는 것도 호남공약의 하나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조기 완공하고, 전라선 고속철도는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여 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서해선 철도 고속화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산, 새만금, 목포까지 단계적 연결을 추진하고, 경전선 전철화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를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광주·대구 달빛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까지 포함됐다.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연장을 신속히 추진해, AI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하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후보는 서해안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연계를 위해, 부안·고창 노을 대교의 조속한 착공,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와 완도, 고흥 연결도 적극 지원,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수도 추진 등도 약속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민의 삶 가시적으로 개선 못해 마음 무거워”

2025 대선 선거인명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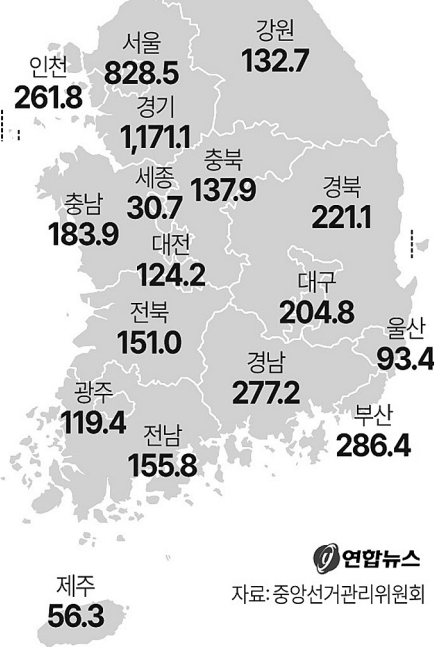
국내선거인 5월 22일 확정

전체 선거인 수	4,439만 1,871명
국내 선거인 수	4,413만 3,617명
재외투표 유권자 수	*25만 8,254명

*국외부재자 *229,531명, 재외선거인 *28,723명
5월 4일 확정, 재외국민 중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은 87,668명

지역별 유권자 수

단위: 만명



이주호 대행, 마지막 국무회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적으로 마다하지 않고 연구,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며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고,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퍼펙트 스톱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우리 외교 지평을 남미, 아세안,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라고도 했다.

이 대행은 “그런데도 국민께서는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팍팍한 국민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국민들에게 더 충실히 설명하고 민심에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연합뉴스

윤여준 “국힘, 윤상현 선대위원장 임명은 김문수-尹 연결된 증거”

“김문수 집권하면 윤 정권 시즌2”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책위원장은 28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친윤석열 인사 윤상현 의원의 합류에 대해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긴밀하게 연결돼있다 증거”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윤 의원이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면서 “기존 선대위를 내란 옹호 세력으로 채운 것도 모자라 윤석열 색채를 노골적으로

강화한 것이며, 저런 사람들이 재집권한다면 내란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냐”라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가 집권하면) 아마도 윤석열을 사면하고 윤석열 정권 ‘시즌2’를 열려고 할 것이며, 왜 저들을 심판해야 하는지 그 명분과 이유가 더욱 뚜렷해졌다”며 “김 후보는 뉴라이트 사관을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중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가 신봉하는 뉴라이트 사관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어긋난다”며 “김 후보가 친일 국

우 세력처럼 일제 강점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옹호하는 입장이라면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로, 김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꼭 투표해서 저들을 심판하자”며 “그래야 흥분도 장군 흥상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친한(한동훈)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27일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선대위 인선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